

4 양캠프 총학 공약점검

서울캠 이행률 70% 미이행 공약은 2개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hu.ac.kr

제53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KHU:KEY(쿠키)’는 전체 37개 공약 중 26개(70%)를 이행 또는 수정·부분 이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약은 9개(24%)이다. 나머지 2개(6%)의 공약은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쿠키의 핵심 공약 7개 중 5개의 공약을 이행하거나 수정 이행하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온라인 안전 상정제 ▲총여학생회 존폐 및 재편에 관한 공론장 형성 등 4개의 공약은 예정대로 이행됐다. ▲자치회비 횡령 방지를 위한 자치회비 회계감사 정기 시행의 경우, 학생 참여형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한다는 기존 공약과 달리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차원에서 회계 감사를 따로 진행하며 수정 이행했다.

남은 2개의 핵심공약인 ▲정책 승계제도 마련 ▲특별대표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신설 공약은 이행 중이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정책승계제도 공약에 대해 “정책 승계는 임기 말에 이뤄질 예정이고, 모든 정책을 강제로 승계할지, 몇 가지를 선택해 승계할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의 정책을 선택해 승계한다면 일반학생 대상으로 정책을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대표기구로서의 인권위원회 공약은 총여학생회(총여)의 해산을 전제하고 만든 공약으로, 현재 총여대안기구 TF팀을 꾸려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학소위)의 방향으로 대안기구 신설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권리와 교육권 관련 공약은 전체 7개 공약 중 ▲경희대학교 캠퍼스 배리어 프리화 ▲교·강사 대상 온라인 수업 활용 교육 실시 등 5개의 공약이 이행 완료됐다. ▲근로 장학생 처우 실태조사 및 근로 장학생 투명선발 ▲예비군 처우개선 공약은 현재 이행 중이다. 근로 장학생 실태조사는 8월 30일부터 10일간 진행돼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투명선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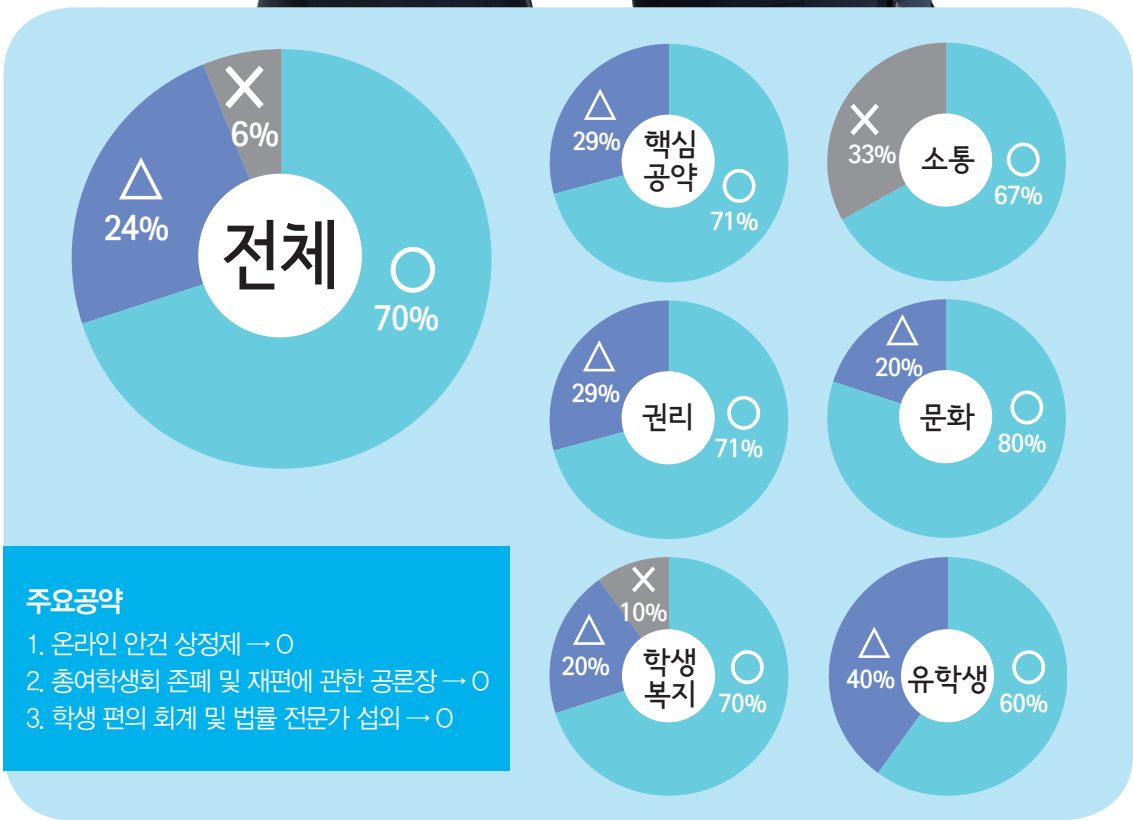
군 처우 개선 공약을 위해 예비군 공결제 시스템을 정보처와 협의한 상황이지만, 시스템은 아직 완성 전이다.

문화생활 관련 공약의 경우 ▲방구석 문화생활 지원 사업 ▲본관에서 즐기는 문화 놀이 사업 등 5개 중 4개의 공약이 이행 완료되거나 수정 이행된 상태다. ▲동아리들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공약에 대해 남 회장은 “기획안은 완성된 상태이며, 11~12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과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생복지 관련 공약은 10개 중 ▲불법 촬영기기 없는 안전한 회기동 ▲도서관자치위원회와 연계한 중앙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등을 비롯한 7개의 공약이 이행 완료됐다. ▲경희인의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 ▲연간 학생대표자 안전 교육 일괄 수료 공약은 이행 중이다. 연간 학생대표자 안전 교육의 경우, 2021-1학기 반성폭력 교육을 시행했다. 2학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대학원 진학 지원 공약의 경우 대학원 진학 관련 행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통 관련 3개의 공약 중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편 ▲유튜브로 만나는 총학생회 공약은 이행·부분이행된 상태다. ▲경희톡 하나로 경희대를 한눈에 공약은 학생회 공지 및 제휴 사업 등의 정보를 경희톡으로 공유하는 공약으로, 이에 대해 남 회장은 “정보처 등 학교 내 부서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임기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아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쿠키는 총여학생회 G2와 공동공약을 세웠다. 이와 관련한 공약 5개 중 3개는 이행 완료됐으며, ▲글로벌 문화교류주간 운영 ▲학생인권위원회 신설로 유학생 차별 문제에 대응 공약은 이행 중이다. 글로벌 문화교류주간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기획은 완성된 상태로 11월에 총여학생회와 협업해 실행할 예정이다. 또, 총여학생회 대안기구로 논의 중에 있는 소수자 인권위원회에 유학생 문제 역시 포함돼 유학생 차별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비대면 맞춤형 공약 주력 공약은 상이

양캠퍼스 종합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가는 여전히 ‘비대면’ 소통 중이다. 2년째 이어진 대면 활동 제약에 따라 양캠퍼스(양캠) 총학생회(총학)는 비대면을 전제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 양캠 총학은 이스포츠 행사와 같은 비대면 축제를 기획하며,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에 힘썼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의 경우, 축제에 대한 공약을 대면 상황

과 비대면 상황 모두를 가정해 만들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문화 공약 중 ▲본관에서 즐기는 문화 놀이 사업 공약에서는 대면 시 “봄에는 벚꽃 문화제, 만우절에는 게릴라 이벤트와 기업 제휴, 가을에는 단풍 문화제를 기획”할 예정이었으며, 비대면 시 “본관을 추억할 수 있는 SNS 해시태그 이벤트, 본관을 주제로 한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진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서울캠 총학은 ‘가을 맞이 본관 문화 놀이’를 진행하며 사진 공모전과 일러스트 공모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Untact(비대면)와 총학 명칭인 ON의 합성어인 ON:TACT 비대면 행사 확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국제캠 총학은 1학기 이스포츠와 KHUiz-On 행사를 기획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와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국제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부분이기엔 미숙했다”며 “과오들이 있었기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위주로 2학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학은 이번 달 이스포츠 대회와 가요제 및 미디어아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캠 총학 ‘KHU:KEY(쿠키)’